



<서재응>

## KIA '광·주·빅·뱅' SK

오늘·내일 맞짱...호랑이 군단 KS직행 고비

서재응에 '연패 끊고 매직넘버 낮추기' 특명

한국시리즈 직행을 위한 마지막 고비가 KIA 타이거즈를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기세로 승을 쌓아가던 KIA 타이거즈가 지난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홈 2연전에서 모두 패를 기록했다. KIA는 앞선 3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연장접전 끝에 2-3 패배를 당하는 등 3연패 중이다. 매직넘버는 9에서 멈춰섰다. 상승세가 꺾인 KIA가 이번주 한국시리즈 직행을 위한 큰 산을 넘는다. 8, 9일 홈에서 2위 SK와 격돌하는 KIA는 10, 11일 한화와의 원정 경기에 이어 12, 13일 잠실로 건너가 두산과 시즌 마지막 대결을 갖는다. SK와의 대결은 KIA의 정규리그 우승 여부를 관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가 될 전망이다.

일단 상대전적에서는 KIA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다. KIA는 SK전에서 10승2무5패를 기록, 남은 경기 승패와 상관없이 상대전적에서 앞서게 된다. 최악의 경우 동률이 나온다고 해도 KIA가 승자가 된다.

KIA가 이번 대결에서 2승을 챙긴다면 승차는 5게임차까지 벌어져 SK에게는 박찬 추격이 된다. SK가 남은 9경기에서 전승을 한다고 가정하면 5승6패가 정규리그 우승의 마지막 선이다.

1승1패를 주고 받고, SK가 남은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 KIA에게는 7승4패가 필요하다. 2패를 당한 뒤 SK의 연승이 계속된다면 KIA는 9승2패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의 수는 모두 SK가 남은 9경기에서 9연승을 달린다는 것을 가정해서 나온 최악의 조합으로, 아직까지는 KIA의 우승에 추가 더 거른다.

1승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큰 경기인만큼 8일 대결은 올 시즌 최고의 명승부가 될 전망이다. 서재응과 카도쿠라는 팀의 연패 끊기와 팀의 연승 잇기라는 정반대의 임무를 띄고 마운드에 오른다.

KIA vs SK			
10	승(2무승부)	5	
3.11	방어율	3.95	
0.253	타율	0.247	
24	홈런	7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연속
1	KIA	72	44	4	0.600	3패
2	SK	70	47	5	0.574	9승
3	두산	65	53	2	0.542	1패
4	삼성	59	61	0	0.492	2승
5	롯데	60	64	0	0.484	4패
6	히어로즈	56	60	1	0.479	1패
7	LG	51	67	3	0.421	1승
8	한화	40	77	3	0.333	1승

KIA는 최근 3경기에서 양현종-로페즈-윤석민으로 이어지는 최정예 멤버를 투입하고도 3연패를 당했다. 특히 5일 경기에서는 믿었던 윤석민이 3과3분의1이닝 10실점으로 무너지면서 패배의 충격이 더 컸다.

반면 SK는 불랜진 이 살아나면서 9연승 행진중이다. 6일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홈런 4개를 앞세워 7-5 승리를 거두는 등 '한방'도 위력적이다.

두 선발투수의 개인적인 입장은 팀 상황과 반대다. 올 시즌 서재응은 SK전에서 2.08의 방어율을 2승을 거뒀다. 카도쿠라는 KIA전 4경기에 등판해 3.00의 방어율을 선전했지만 승을 챙기지 못했다.

마운드의 초반 기싸움이 KIA의 이번주 향방을 결정짓게 된다. 지난주 최악의 피칭을 선보인 윤석민이 어깨상태가 좋지 않아 공백이 불가피한만큼 마운드 분위기가 승패의 키를 쥐고 있다.

마운드를 조력할 세밀한 수비도 절실하다. KIA는 최근 3경기에서 5개의 실책을 기록했다. 보이지 않은 실책까지 속출하면서 아쉬운 승부가 이어졌던 만큼 투수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수비가 이번주 KIA의 매직넘버를 좌우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카도쿠라>

## 나상욱 생애 첫 우승 보인다

도이체방크챔피언십 3R 1타차 4위

재미교포 나상욱(26·타일러리스트)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두번째 대회인 도이체방크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 기회를 잡았다. 나상욱은 7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던의 보스턴TPC(파71·7천207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6개를 뽑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아 5언더파 66타를 몰아쳤다. 공동 선두를 달린 스티브 스트리커, 션 오헤어(이상 미국), 레티프 구센(남아공, 이상 13언더파 209타)에 1타차로 따라 붙은 나상욱은 같은 공동4위 파드리크 헤링턴(아일랜드), 스킷 버클랭크(미국) 등과 함께 뜨거운 최종 라운드 우승 경쟁에 뛰어 들었다. 나상욱은 157차례 투어 대회에 출전해 2005

년 FBR오픈과 크라이슬러 클래식에서 준우승을 두차례 차지했을 뿐 아직 우승이 없다. 1번홀(파4) 버디로 기세를 올린 나상욱은 4번홀(파4)에서 1타를 더 줄여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8번 홀(파3)에서 6m 파 퍼트를 놓치면서 상승세가 꺾이나 싶었지만 정교한 아이언샷은 흔들리지 않았다. 10번과 12번 홀(이상 파4)에서 130m 안팎의 거리에서 날린 두 번째 샷을 모두 홈 2m에 바짝 붙이며 버디를 뽑아낸 나상욱은 마지막 두 홀 연속 버디를 잡아냈다. 4라운드로 이어지는 분위기를 한껏 띄워놓은 셈이다. 18번 홀(파5)에서는 두 번째 샷을 홈 2.3m 거리에 떨어뜨려 이글로 바라보으나 퍼트가 살짝 빗나가 버디에 만족해야 했다. 나상욱은 "있을 것이 없어 편한 마음

으로 경기를 치른 덕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한 라운드가 더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퍼트에는 부담이 좀 생겼던 것 같다"며 "첫 우승을 거두면 더 의욕이 생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1타를 잃은 위창수(37·테일러메이드)는 공동 23위(6언더파 207타)로 밀렸고 4타를 줄인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은 순위를 공동 25위(5언더파 208타)로 끌어 올렸다.

기대를 모았던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은 공동43위(3언더파 210타)에 머물렀고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도 공동30위(4언더파 209타)에 그쳐 우승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선두에 9타나 뒤진 우즈는 7번 홀(파5) 1.6m 버디 퍼트, 11번 홀(파3) 1.8m 파 퍼트를 놓쳤다. 우즈는 이번 대회에서 1.5~3m 거리의 퍼트 16개 가운데 절반만 성공했다. /연합뉴스



내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전 경기 출전권을 따낸 최송아(왼쪽)와 조민선.

### 최송아·조민선 '굿샷'

LPGA 전 경기 출전권

최송아(24)와 조민선(22)이 내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전 경기 출전권을 따냈다.

국가대표를 지냈던 최송아는 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올버니의 캐피탈힐스 골프장에서 열린 LPGA 2부 투어인 퓨처스투어 마지막 대회 아이리브뉴욕 챔피언십에서 3라운드 함께 8언더파 205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최송아는 상급 랭킹을 11위에서 5위로 끌어올리며 내년 LPGA 투어 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퓨처스 투어 시즌 상급 랭킹 1~5위까지는 LPGA 투어 전 경기 출전권을, 6~10위까지는 조건부 출전권을 얻는다.

작년 퓨처스 투어에서 상급 랭킹 6위에 올라 LPGA 조건부 출전권을 따낸 최송아는 4개 대회에 출전, 모두 컷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전 경기 출전권을 확보하면서 내년 시즌을 한결 마음 편하게 보내게 됐다. 미국 페퍼다인 대학에 다니는 조민선은 마지막 대회에서 공동 20위(이븐파 213타)에 그쳤지만 상급 랭킹 3위에 올라 최송아와 함께 LPGA 투어에 합류하게 됐다.

조민선은 작년 2부투어 상급 랭킹 36위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2승을 수확했다. /연합뉴스



나상욱이 7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던의 보스턴TPC에서 열린 PGA 도이체방크 챔피언십 3라운드 15번 홀에서 세컨드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지애 아쉽지만 '톱 10' 만족

LPGA 加오픈 페테르센 우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구단인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사진)의 독주를 막지 못하고 톱10에 3명이 이름을 올리는데 만족해야 했다.

7일(한국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프리디스 그린골프장(파71·6천427야드)에서 끝난 LPGA 투어 캐나다오픈에서 김인경(21·하나금융)이 7위(9언더파 275타), 신지애(21·미래에셋)와 김승희(21)가 공동 10

위(7언더파 277타)로 대회를 마쳤다. 전날 2위와 격차를 5타차로 벌리며 질주했던 페테르센은 마지막 4라운드에서 1타를 줄이는데 그쳤지만 함께 15언더파 269타로 2007년 10월 혼다LPGA타일랜드 우승 이후 23개월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페테르센에 7타 뒤진 공동 4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김인경은 버디 4개를 잡았지만 보기 2개를 곁들이면서 페테르센을 견제하지 못했다. 전날 강한 바람 때문에 77타를 적어내며



무너졌던 신지애는 4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9개를 쏟아내며 데일리 베스트 스코어인 8언더파 63타를 쳤지만 우승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연합뉴스